

말씀의 샘

믿음을 통해 오시는 주님 <여호수아 2장 1~12절>

창세기를 비롯한 구약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언급된 경우는 유대인들의 특성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숫자에 넣지 않았음을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 있으며, 복음서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도 장정만 몇 명인지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의 첫 시작인 족보에서 이례적인 요소가 등장합니다. 여자의 이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도 강조하는 표현까지 써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벧을 낳고

만약, 여자의 이름이 굳이 들어가야 한다면 동정녀 마리아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이렇게 되면서까지 꼭 들어가야 할만한 저자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들이 주님이 오시는 중요한 요소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름이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즉 제외되었던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은혜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격없는 우리들, 이름이 빠졌어야 할 죄인인 우리들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발자취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여인들의 출신성분, 그 여인들의 과거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의 믿음이 주님이 오시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하고 보여드려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오신 징검다리, 주님이 오신 족보는 은혜의 발자취이자 믿음의 발자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라합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 무엇이 사는 길인지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수 2:3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미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 두 명의 정탐군이 들어왔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여리고왕이 라합에게 그들의 거취를 묻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한쪽을 선택해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리고성이 천연의 요새이고 견고한 성, 군사력이 우수한 성이었기에 여리고성을 선택하여 정탐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옳아 보일 수 있습니다. 라합은 한 마디로 잘 선택해서 구원받은 케이스입니다. 중요한 분기점, 위기의 순간에 그녀는 옳은 것을 분별하고 결단하여 선택하였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입니까? 우리는 세사편입니까? 아니면 하늘 나라편입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어느 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합과 같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라합은 잘 선택하였습니다. 두 선택 다 위험할 수 있는 순간에 그래도 옳은 것을 묵숨걸고 선택한 라합에게는 분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둘째, 귀가 복되어야 바르게 선택합니다!

9절부터는 라합이 이렇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몰리면서까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라합이 정탐군들을 숨겨둔 건물목상에 올라가서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 2:9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니시라 여리고 백성이 대부분 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만 반응은 여러 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것을 충격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사실적인 믿음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으며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까지 발전되었습니다. 노아와 그 시대 사람들 중에 홍수 소식을 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방주에 탄 사람은 오직 8명 뿐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두 명의 천사가 소돔성을 멸하러 갔을 때 이 사실을 롯에게 알렸고 롯은 자기 가족들에게 곧 소돔성이 멸망할 소식을 긴박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도 귀가 복되어야만 제대로 듣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살 수 있습

니다.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귀가 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충격적인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믿음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창세기 19:16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들은 농담으로 들은 사위들을 아예 제쳐둡니다. 오직 귀가 열려 소돔성의 멸망을 진지하게 들은 롯과 그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아 소돔성 바깥으로 이끌어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하나님도 보시고 천사들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가 열려 듣는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며 붙잡아 이끌어 가십니다.

셋째, 믿음의 증거를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라합은 그 정탐군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그날에 라합과 그 가족들이 살도록 서로 간에 약속된 사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믿음생활에서 중요합니다. 믿음을 확실히 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믿음을 붙잡고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수 2:12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18**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정탐군들은 라합에게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사인으로 붉은 줄을 매어 창밖으로 표시가 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는데 붉은 줄은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된 사인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보실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로 드러내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것입니다.

수 2:21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귀가 복된 사람,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은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 붉은 줄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앞에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쳐들어올 즈음에 붉은 줄을 달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자마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라합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라합이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의 귀가 열리고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두란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2015. 12. 20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5. 12. 27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빌립보서 4장 11~19절

말 씀 선 포 ----- 이 강화 목사

"합당한 그릇"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